

[충청남도 조례]

똑똑한 조례



충청남도 일본 전범기업 제품
공공구매 제한에 관한 조례

대표발의 | 김대영 의원

“올바른 역사 인식
확립을 위한
실질적인 노력”



충청남도의회
CHUNGCHONGNAM-DO COUNCIL



우리에게는 뼈아픈 역사인 일제강점기

일본의 일부 기업은 대일항쟁기 당시
전쟁물품 보급과 침략전쟁 수행을 위해

**우리 국민을 강제 동원하여
노동력과 재산을 착취하고,
생명마저 앗아갔습니다.**

**그리고 그 기업들은 현재
전 세계에 이름을 떨치며 당당히
글로벌 기업으로서의 위상을 누리고 있습니다.**



그들은 강제 동원한 우리 국민의
피땀 어린 고통과 눈물을 외면한 채,
공식적인 사과나 배상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.

오히려 **역사를 부정하고, 식민 통치를
정당화하는 등 반인륜적 행태를
드러내고 있습니다.**



**우리는 이를 바로잡으려는 노력을
계속해야 합니다.**



국가와 국민 차원에서 최근 몇 년간
이어지고 있는 **일본 전범기업 불매 운동**은
전범기업들에 역사 왜곡에 대한
무엇보다 강력한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다.



이에 충청남도의회 역시, 도 차원에서 행동하기 위해
‘일본 전범기업 제품 공공구매 제한에 관한 조례’를
제정했습니다.



이 조례는 일본 전범기업에 대해 도민들과 함께 한 목소리를 내어
올바른 역사 인식 확립을 하는 데 이바지하고자 합니다.

제 2 조

대한민국에 국민에게 피해를 입힌 일본 전범기업 규정

제 3 조

충청남도의회와 본청, 직속기관 등
전범기업 제품 공공구매 제한 노력 규정

제 5 조

공공구매 제한 위한 교육과 홍보, 중장기계획,
관계 기관과의 협력 등 수립 시행

제 8 조

일본 전범기업 제품 공공구매를 지양하는
문화가 될 수 있도록 문화 조성





보다 실질적인 변화를 이루려는 노력이
역사 인식을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.

충청남도의회는 도민과 함께
일본 전범기업들이 반성의 목소리를
내는 그날까지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.

